

'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지킴이 '톡톡'

음주 운전 검거·실종아동 발견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시민 안전과 생명 지키는 첨병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

순천시의 'CCTV 통합관제센터'가 365일 24시간 실시간 관제로 각종 사건·사고와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순천시에 따르면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난달 30일 새벽 지역의 한 상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음주 운전을 하는 현장을 관제하고 경찰과 공조해 음주 운전자를 조기에 검거하면서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했다. 또 지난달 25일 지역의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등굣길 아동 실종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과 공조해 신속한 CCTV 집중 모니터링으로 실종 아동을 발견하고 가족에게 인계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가출인 발견, 20일 치매 노인 발견 등 올해 들어 중요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등 크고 작은 관제

실적이 1865건에 달한다. 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중요 범죄인 검거에 기여해 순천경찰서로부터 2021년 3월까지 4회, 2020년 8회 감사장을 받은 바 있다.

통합관제센터 관계자는 "안전 최전선을 수호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지속적인 실시간 CCTV 관제에 나서고 있다"면서 "각종 사건·사고·재난 등을 예방하고, 범인 검거에 기여하면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다음달부터 운영

광양시가 전라남도 장기체류 여행 프로젝트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에 선정돼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전남·광주 거주 경협이 없는 만 18세 이상 광양여행 희망자 중 파급력이 큰 여행작가,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 5팀(10명 이내)을 우대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참가자에게 숙박비, 교통비, 식비, 체험비 등이 지원되며 참가자는 사진, 여행 후기 등을 개인 SNS에 올린 후, 남도여행길잡이 홈페이지(<https://www.namdokorea.com>)에 수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장기 체류여행 프로젝트 홍보 및 경제 활성화 기대

시는 4월 중, 시 홈페이지(gwangyang.go.kr)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고 체류기간, 여행목적, 홍보방안 등을 검토 후 대상자를 선정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인플루언서를 선정해 홍보를 꾀하는 한편, 관광지 불편·개선사항 등 모니터링 및 피드백 강화로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박순기 관광과장은 "숨은 여행지나 덜 알려진 여행지를 찾아 그곳만의 특별한 콘텐츠를 경험하려는 여행자가 늘고 있다"며, "스치는 여행이 아닌 머무는 여행을 통해 광양의 숨은 매력을 발견하는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불고기, 닭숯불구이 등 광양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과, 상반기 완공을 앞둔 질드레, 치유의 숲 등을 통해 특별한 경험을 충분히 누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는 전라남도가 보내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재방문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전략사업으로, 광양을 비롯해 순천, 여수, 강진 등 14개 시군이 참여한다.

광양=심승섭 기자

보성군, 마을600 사업 1년...마을 공동 소득 창출로 이어져

특량면 석장마을공동체 두릅 첫 수확... 공판장 출하



보성군 특량면 석장마을 주민들은 지난 2일 '우리동네 우리가 가꾸는 보성600' 사업으로 심은 두릅나무에서 두릅 6kg을 채취해 마을 공동 소득을 창출했다.

주민들이 함께 수확한 두릅은 1kg 당 2만 5천 원에 공판장으로 출하돼 총 15만 원의 마을 공동 소득이 발생

했다. 석장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4월 마을 유희지에 두릅나무 1천 그루를 심었고, 1년 동안 함께 나무를 가꾸었다. 올해도 석장마을 주민들은 600사업에 참여해 마을 도로변과 하천변으로 두릅나무 1천주 가량을 추가로 식재할 계획이다.

석장마을 임동영 이장은 "아직은 수확량이 적어 소득도 작지만 우리

마을 주민들이 함께 가꾼 두릅나무에서 소득이 창출되는 기회를 모두가 함께 보고 경험했다는 것만으로도 참 뿌듯하다"라면서 "올해도 600사업에 참여해 두릅나무를 추가로 심으면 내년에는 더 많은 공동 소득이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600 사업이 시작된 지 1년이 된 시점, 보성600 사업을 시작한 이유였던 마을공동체 부활과 마을 소득 창출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면서 "올해 600사업도 성공

적으로 추진하여 내년에는 더 많은 마을들이 마을 공동 소득 창출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동네 우리가 가꾸는 보성600' 사업은 보성군이 2020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였으며, 보성군 전체 600개 자연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 직접 마을을 가꾸는 주민참여형 마을 가꾸기 사업이다. 올해는 오는 4월 8일부터 보성600 사업이 시작될 계획이다.

보성=김명순 기자

고흥군, 방조제 개보수·대구획경지정리 4개지구 확정

총 사업비 84억원 투입

고흥군은 2021년도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신규지구로 금산 대흥, 포두 옥강, 두원 월하지구가 대구획경지정리 신규 사업으로 대서 송림지구가 선정되어 국도비 56억원을 확보했다.

금회 확정된 신규사업 중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노후된 방조제를 개보수하여 바닷물의 유입으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과거 경지정리를 하였으나 용배수로 시설이 취약한 평야부 우량농지를 재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전남도와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 조사 및 농림축산식품부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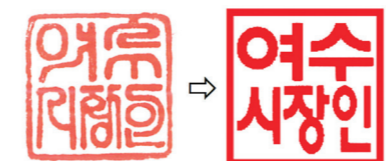
금회 확정된 농업생산기반시설 신규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간 총 사업비84억원을 투입, 배수갑문 등 노후화된 방조제 시설과 용배수로, 농로 등을 일괄 개선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후도가 심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국도비 확보를 통해 적기 개보수 사업을 추진,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흥=김택영 기자

여수시 직인, 사용 20년 만에 '여수전용체'로 상징성 살린다

1999년 3여 통합 일괄 개발...통합여수 의미 뜻깊게 만들어



읍면장인 등 공인 462점 포함 개각 기존 공인 기록관 이관 영구 보존

여수시가 5월부터 20여 년간 사용해온 여수시장 직인을 기존의 '한글전서체'에서 '여수전용체'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999년 3여통합의 일환으로 개발된 여수전용체를 사용함

으로써 통합여수의 상징성을 살리고 직인의 의미를 뜻깊게 만들 수 있도록 교체하게 됐다.

이번 개각 대상에는 여수시장 직인 뿐만 아니라 읍면장인, 민원사무전용인, 회계관인 등 기존에 전서체로 사용되어 왔던 공인 462점도 포함됐다.

여수시는 기존 공인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행정박물관 영구 보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인 개각은 3여통합의 정신을 살리고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행정의 일환이다"면서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오상호 기자

책과 함께 즐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